



[제1독서] 창세기 14,18-20

[화답송] 시편 110(109),1,2,3,4

(© 4ㄴㄷ)

◎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나이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
-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홀을 시온에서 뺏치시리이다. “너의 원수들을 다스려라.” ◎
- 네 권능의 날에 주권이 너와 함께하리라. 거룩한 빛, 새벽 품에서 나는 너를 낳았노라. ◎
- 주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제2독서] 코린토 1서 11,23-26

[부속가] <성체송가>

찬양하라 시온이여, 목자시며 인도자신, 구세주를 찬양하라.
 정성다해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능력 부족하다.
 생명주는 천상양식, 모두함께 기념하며, 오늘특히 찬송하라.
 거룩하온 만찬때에, 열두제자 받아모신, 그빵임이 틀림없다.
 우렁차고 유쾌하게, 기본노래 함께불러, 용약하며 찬양하라.
 성대하다 이날축일, 성체성사 제정하심, 기념하는 날이로다.
 새임금님 베푸잔치, 새파스카 새법으로, 낡은예식 끝내도다.
 새것와서 옛것쫓고, 예표가고 진리오니, 어둠대신 빛이온다.
 그리스도 명하시니, 만찬때에 하신대로, 기념하며 거행한다.
 거룩하신 말씀따라, 빵과술을 축성하여, 구원위해 봉헌한다.
 모든교우 믿는교리, 빵이변해 성체되고, 술이변해 성혈된다.
 물질세계 넘어서니, 감각으로 알수없고, 믿음으로 확신한다.
 빵과술의 형상안에, 표징들로 드러나는, 놀랄신비 감춰있네.
 살은음식 피는음료, 두가지의 형상안에, 그리스도 온전하다.
 나눔없고 갈림없어, 온전하신 주 예수님, 모든이가 모시도다.
 한사람도 천사람도, 같은주님 모시어도, 무궁무진 끝이없네.
 선인악인 모시지만, 운명만은 서로달라, 삶과죽음 갈라진다.
 악인죽고 선인사니, 함께먹은 사람운명, 다르고도 다르도다.
 나뉘는성체 조각마다, 온전하게 주 예수님, 계시움을 의심마라.
 겉모습은 쪼개져도, 가리키는 실체만은, 손상없이 그대로다.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복음] 루카 9,11ㄴ-17

[성가 안내]

- 입당성가: [202] 구세주의 성심이여
- 봉헌성가: [510] 주님께 올리는 기도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 성체성가: [197] 나그네 양식이요 [504] 우리와 함께 주여
- 파견성가: [200] 열렬하신 주의 사랑



“빵과 포도주”

“Bread and Wine”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은 인적이 없는 황량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던 군중은 날이 저물어가자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야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가 주님께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루카 9,12)라고 청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었고 사람들은 장정만도 오천 명 가량이나 되는 많은 숫자였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대충 쉰 명씩 떼를 지어 앉게 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리러 축복하신 다음 그것들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주어도 주어도 모자라지도 않고 떼를 지어 앉은 사람들이 실컷 먹고도 열두 광주리나 남았습니다. 이 기적은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이 없어라.”(시편 23,1)로 시작하는 시편의 노래가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배고프고 지친 군중을 그대로 보내지 않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먹고 쉬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던 종말의 ‘좋은 목자’(에제 34,11-16)가 또한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The miracle happened in a deserted place. As the day was drawing to a close, the crowd who followed Jesus and the disciples should have gone to the surrounding villages and farms and find lodging and foods. So the disciples approached Jesus and said, “Dismiss the crowd so that they can go to the surrounding villages and farms and find lodging and provisions; for we are in a deserted place here.”

Five loaves and two fish were all they had and the men there numbered about five thousand. Jesus told the disciples “Have them sit down in groups of [about] fifty.” Then taking the five loaves and the two fish, and looking up to heaven, Jesus said the blessing over them, broke them, and gave them to the disciples to set before the crowd.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And when the leftover fragments were picked up, they filled twelve wicker baskets. This miracle was the completion of the song in Psalms, “The Lord is my shepherd; there is nothing I lack.” The Lord fed the crowd and had them rest in his love.

주님께서 잡히시어 수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시작되기 전날 주님은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빠스카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식사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성체성사를 제정하십니다. 구약 창세기에서 영원한 사제이며 살렘의 왕인 멜키체덱은 빵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나와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축복을 해줍니다.(창세 14,18-20)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의 의미가 살아나고 빵과 포도주가 성체성사로 연결되는 의미있는 식사가 된 것입니다.

The night before he was caught and suffered from his passion, the Lord had the last supper with his disciples in an attic. In the last supper, Jesus established the Sacrament of Eucharist. In the Old Testament, Melchizedek, king of Salem, brought out bread and wine to Abraham. He was a priest of God Most High. That was a meaningful meal, in which bread and wine became the Sacrament of Eucharist.

주님의 성체성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식사 중에 먹는 빵과 포도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불평하지 않고 축복으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성사로 이어집니다. 성체성사가 주님의 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 바오로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빵은 주님의 몸으로 포도주는 피로 맺은 새 계약이 되어 빵을 먹을 때마다, 또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1코린 11,2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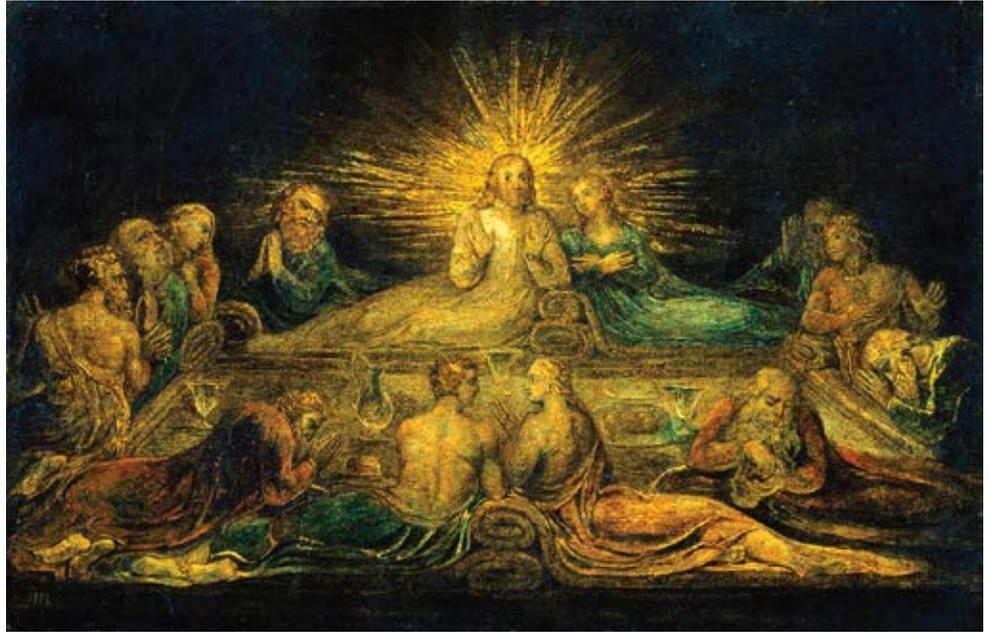
From the early history of our Church, it has been well recognized that the bread and wine are the new testament between God and the faithful. Paul the Apostle said, “The Lord Jesus, on the night he was handed over, took bread, and, after he had given thanks,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that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also the cup,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우리도 때로 지치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성체성사를 통하여 주님의 수난을 새기며 감사하는 생활로 연결해야 하겠습니다. 성체성사를 통하여 주님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고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Today is the Feast of the Most Holy Body and Blood of Christ Lectionary. We must think over the passion of the Lord and give thank to the Lord. Our lives go up to the Salvation through the Eucharist.

성체성사의 기적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다락방에서 그리스도가 죽음을 예고하며 배신자를 지목하는 내용으로, 그리스도는 12 사도에게 자신의 살과 피인 빵과 포도주를 나눠준다. 이를 통해 인간은 죄를 용서받고 영성체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류 구원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가톨릭교회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하는 ‘실체 변화’(Transubstantiation)와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의 현존을 믿는다. 성체의 논란은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에 와서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는 단지 상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실재적(實在的)으로 존재함을 명시한다’를 포함한 11항목의 교리로 정립된다. 지하 카타콤교회부터 시작화된 성서 내러티브의 이 주제는 기독교 도상 중 최고의 명작이자 대표작인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으로 절정에 이르며 모든 종교화를 압도한다.



〈최후의 만찬〉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 캔버스에 템페라, 30.5 x 48.2 cm, 1799

내셔널 갤러리가 보유한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의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은 한 장면의 그림으로 미술의 강력한 힘을 과시한 거장의 오마주로 제작되었다. 18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자 화가로서 텍스트와 이미지를 결합한 복합예술을 추구한 블레이크는 중세 고딕성당의 파사드와 기둥 장식의 그로테스크하고 기괴한 조각상에서 영감을 찾았다. 그는 단지 양식적 외피적 복제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고딕 성당 내부에 스며있는 감동적인 힘을 영적 에너지로 전환하였다. 성서적 신화적 상징과 상상력과 직관으로 우주의 비밀을 재현한 그의 이미지는 해독이 난해하여 외면당하지만, 중세 템페라 기법으로 창조된 최후의 만찬은 신비롭고 환상적이다. 관람객은 그림의 핵심 요소인 찬란한 금색선의 후광으로 빛나는 독보적인 모습의 중앙 그리스도, 빵과 포도주, 식탁을 둘러 앉은 12사도를 만난다.

블레이크는 기존의 원근법적 체계를 변형 탈피하여 물질성이 배제된 중세적 윤곽선과 비가시적 비전적 세계로 인도하는 선에 집중하여 환영적 세계를 극대화한 만찬 장면을 제시한다. 유려하고 섬세한 선과 강렬한 음영대비로 탄생한 우아하고 몽환적인 화면은 신비로운 아우라를 형성해 화면에 몰입시킨다. 그는 검은 주조색으로 덧칠한 바탕화면에서 스크래치 기법으로 인물을 하나씩 살려내 어둠 속에서 금빛 지상 공간으로 해방시켰다. 관람객은 인물들에게 등을 돌린 채 돈을 세는 더 없이 세속적인 인류 배신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유다에게도 현혹당한다. 블레이크는 독특한 개성으로 시대를 초월한 인류의 성찬식을 탄생시켜 관람객에게 호소하며 거대한 역사적 패러다임이 교체되는 전통과 과도기 선상의 예술적 궤적을 보여준다.

블레이크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묵상 중 체험하는 성령의 환상과 예언, 신비로운 상상의 세계를 독특한 신화로 창조하여 자신만의 표현 양식을 구축해 명작을 남겼다. 관람객은 그림 앞에서 최후의 만찬으로 기억되는 인류의 오묘한 성체성사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현존을 확인한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맺은 생명의 계약을 기념하는 성체 성혈 대축일은 1264년 교황 우르바노 4세의 교서로 교회에서 정식으로 제정되어 교황 에우제니오 4세에 의해 인가되었다. 최후의 만찬에서 세우신,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성체성사의 신비는 믿음을 통해서 매일 매일 우리 삶의 기적으로 다가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원천이자 정점인 신앙의 신비다!

“미술은 생명의 나무다. 과학은 죽음의 나무다. 신은 예수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저평가된 예술은 현대 예술에 지속적으로 영감을 주며 20세기에 들어와 위대한 예술가로 재조명된다. 손바닥 안의 무한 세계를 이루어낸 스티브 잡스가 ‘생각이 막힐 때 블레이크의 시집으로 마음을 정화하여 통찰력과 상상력으로 영감을 끌어냈다’고 밝혀 더욱 유명해졌다.

(이순희 아네스)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알링턴 교구 주최 ‘다민족 성가 음악회’ 참가



알링턴 교구 다민족 선교부가 주관하는 ‘다민족 성가 음악회’가 지난 21일(토) 오후 7시 Bishop Ireton 고등학교(알렉산드리아 소재)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음악회에는 성 정 바오로 성당을 비롯하여 베트남, 필리핀, 브라질 등 총 8개 민족 팀이 참가하여 각국의 고유한 음악을 선보였다.



29명으로 구성된 우리 본당의 합창단(지휘 노혜란 엘레나, 반주 하주리 마리아)은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Ave Maria)’를 노래했으며 첼로 연주(김진아 안나)도 함께 선사해 아름다운 무대를 장식했다. 이어 김춘실 마리아의 장구와 김춘미 마리아의 북 장단에 맞춰 흥겨운 우리 민요 ‘몽금포 타령’이 울려 퍼졌다. 여자 합창단원의 아름다운 한복 맵시와 함께 흥이 넘치는 한국 민요로 4백여 명 청중들의 환호와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 날 행사에는 비가 오는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인준 주임신부를 비롯한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다. 지난해 47명이 참가한 데 비해 올해는 29명이 참가해 아쉬운 점도 많았으나 참가자들은 “다른 민족의 합창을 들으며 하느님 안에서 하나 됨을 느낀 감격적인 시간이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희망했다.



◆ 불우 이웃 돕기 야드세일 ◆

“협조해 주신 교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야드세일이 지난 21일(토)부터 22일(일)까지 친교실에서 열렸다. 우천으로 인해 친교실에서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청년 로고스회와 라파엘 회원들,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로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복지부(부장 강동훈 요한) 주최로 본당 교우들이 정성껏 기증한 의류 및 각종 가정 용품 등이 판매된 이번 야드 세일에서 4천 2백불이 모였으며 이 성금은 본당의 불우 이웃 돕기 기금으로 보태진다.



파티마 세계 사도직 전체 쉐 기도 모임



2016년 파티마 세계 사도직 전체 쉐 기도 모임이 지난 22일(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친교실에서 있었다. 전체 11개 쉐팀 중 10개 쉐팀이 참가한 기도 모임에는 어른 54명, 어린이 16명 그리고 초대받은 9명을 포함하여 총 79명이 참여했다. 1부 순서는 기도문과 묵주기도(환희의 신비), 교황님께 드리는 기도, 영적 독서, 그리고 각 쉐 소개와 생활 나눔으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부에서는 각 쉐팀 별로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전체 쉐 기도 모임은 파티마 세계 사도직 전체 쉐 가족들이 성모님의 망토 안에서 예수님께 기쁨을, 하느님께는 영광을 드린 가슴 벅찬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Congratulations!

St. Paul Chung Students receive their First Communion.



Thirty-four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First Communion ceremony held on Sunday May 22nd at St. Paul Chung. The students spent six months preparing for the reception of this Sacrament under the tutelage of their teachers, Rosaria Shin and Andy Oh, and Father Seong.



HERE THE LORD PREPARES THE FEAST DIVINE!

“This is my Body given up for you. Do this in Memory of Me.” (Lk.22:19)

Congratulations to all First Communion Students of 2016, who were chosen specifically and especially by Christ to share His Life of Grace in Him. Amen!

Thank you Fr. Seong for giving them Holy Baptism, First Confession, and First Holy Communion “Thanksgiving” Mass.

God Bless You and Your Family!

Rosaria Shin, First Communion Catechist

“It is a great pleasure to congratulate our first communicants for 2016. The students were cheerful and so funny, and were the high point of my week.

It was a great privilege and a lot of fun to be able to impart the truths of the Catholic faith concerning the Eucharist. The Eucharist is where you will draw grace, peace, joy, and strength to overcome all obstacles and root out any sins. Remember that all things can be obtained by prayer and God never abandons those who remain faithful to him. Take care, and don't mess with Bob!”

Andy Oh, First Communion Catechist

Dear Jaime,

I am so proud of you for your hard work and all the accomplishments. I really hope that this First Communion will change your life forever and you can always have Him close to you in the Eucharist at Mass. Taking Holy Communion will strengthen you to face some of the difficulties the life will bring and it will give you joy in the beautiful faith we have.

Your dad and I are so happy to see you growing as a Catholic. We are excited about you as you enter this new phase of your spiritual life.

Jaime, my beautiful daughter, we love you, and congratulations on your First Holy Communion.

Love,

Mom, Mi-Kyong Monica Kwon

The Catholic Sacrament of Holy Communion



The Essentials of Catholic Sacraments

Of all seven Sacraments, the Holy Eucharist, or Holy Communion, is the most central and important to Catholicism. Holy Communion is offered at every Mass. In fact, the ritual of the Mass is largely taken up with preparing the hosts (wafers made of wheat and water, or gluten-free) and wine to become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and the congregation to receive the body of Christ. Transubstantiation is the act of changing the substances of bread and wine into the substances of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ANNOUNCEMENTS

- Jr. High WorkCamp**
 - Who : Rising 7th - Rising 9th Grades • When: July 6 - July 9
 - Cost: \$75/person • Registration deadline: June 10th (Fri)
 - Seeking high school volunteers
 - Please contact Yunchong Boyle (703) 371-3589
 - For further information
- CCD Outdoor Mass & Picnic Registration**
 - Students who would like to attend the event need to turn in two forms (Registration and Permission forms) to the Hasang Lobby.
- SPC CCD Summer Camp (Aug. 12 - Aug. 14)**
 - Registration will start soon

1 메모리얼 데이 미사

- 일시: 5월 30일 (월) 오전 11시
- 장소: Fairfax Memorial Park
9900 Braddock Rd, Fairfax, VA 22032
(우천시 Holy Spirit Catholic Church)

2 2016년 미동부 성령대회

- 일시: 5월 29일 (일) 오후 2시-9시,
5월 30일 (월) 오전 9시-오후 5시
- 장소: 볼티모어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 문의: 김 그라시아 (703) 229-7928

3 성 정바로 성당 청소년 장학금(2016-17)

- 자격 조건: 대학 진학 예정자 또는 대학 재학생
- 장학 금액: \$1,000 • 신청 마감: 5월 29일 (일)
- 장학금 전달: 6월 12일 (일) 오전 10시 미사중
- 자세한 사항은 본당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병자영성체

- 일시: 6월 3일 (금)
- 신청: 조영인 형제 (703) 264-0050

5 구역임원 교육

- 일시: 6월 5일 (일) 오전 11:30 (B-1,2)

6 파티마 세계 사도직 첫 토요일

- 일시: 6월 4일(토) 오후 6:15, 성당

7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6월 5일 (일) 오후 1시 (B-1, 2)

8 청소년 사도회

- 일시: 6월 5일 (일) 오후 1시 (B-3, 4)

9 바오로회 제2차 총회

- 일시: 6월 5일 (일) 오후 6시 (친교실)
- 문의: 김윤식 블라시오 (214) 592-6369

10 페루 선교 기금 모금

- 페루 선교 기금을 위해 김밥과 차를 판매하니
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6월 5일 (일) 오전 8시 미사 후 - 오후 1시까지
- 문의: 심안젤라 (703)725-6453

11 복사단 학생 모집

- 대상: 첫 영성체 받은 학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
- 신청: 6월 12일까지 사무실
- 문의: 권용우 스테파노 (571) 244-0333

12 CCD 야외미사 및 소풍 접수

- 야외미사 일시: 6월 19(일)
- 장소: Frying Pan Farm Park Visitor Center, Herndon
- 야외미사 접수 마감: 6월 5일
(신청서와 퍼미션 슬립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꾸르실료 지도 신부님배 골프대회

- 일시: 6월 5일 (일) 오후 1시 (12:30분 도착)
- 대상: 전신자
- 장소: Pleasant Valley Golf Course
- 참가비: \$100 (점심, 음료수, 저녁 포함)
- 문의: 곽노덕 도미니코 (703) 608-9664

14 하상 성인학교 서양화반 작품 전시(봄학기)

- 일시: 6월 5일 (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친교실)
- 하상 성인학교 서양화반(강사 김 이레네)에서
봄학기 동안 그린 작품(유화, 아크릴, 수채화) 20점을
전시하니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5 하상 성인학교 봄학기 종강식

- 일시: 6월 10일 (금) 오전 11:50 (친교실)
- 문의: 김 율리아나 (703)217-2775 (종강식 후에도
수업이 계속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6 하상 성인학교 휴강

- 휴강일: 5월 31일 (화)

♡ 4 복음서 필사 노트 전시 ♡

4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가, 요한 복음)
필사노트를 9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쓴 필사 노트는 본당 공동체
창설 30주년 기념일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3년(1차)과 2015년(2차)에
성경 통독을 마친 신자들은 사무실에 마련된
양식서에 명단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5월 29일(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주일학교 없음
30일(월)	연중 제9주간 월요일	아침 미사(6:00, 성당), 사무실 휴무
31일(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관 축일	레지오 마리아(20:00, 친교실), 성령기도회(20:00, 친교실), 하상성인학교 휴강 예비자 교리(20:00)
6월 1일(수)	성 유스티노 순교자 기념일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성경학교(20:00)
2일(목)	연중 제9주간 목요일	아침 미사(6:00, 성당)
3일(금)	예수 성심 대축일	병자성사, 하상 성인학교(하상관 9:00-15:00), 회장단회의(20:00), CLC 20:00
4일(토)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	아침 미사(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 (9:30, 친교실), 혼배미사(14:00, 성당), 파티마 첫 토요일(18:15)
5일(일)	연중 제10주일	구역임원교육(11:30, B-1,2), 청소년사도회(13:00, B-3,4), 성모회임원회의(13:00, B-1,2), 바오로회(친교실, 18:00)

하상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6월 2일 (목) 오후 9시-11시

- **오늘의 양식:** 성 정 바로 성당 주일 강론
- **가톨릭 소식:** 교황청, 세계, 한국의 주요 가톨릭 소식 종합
- **특집 다큐 '사제':** 사제 성소를 주제로 한 PBC 특집 "예, 여기 있습니다"

• **우리 시대 사람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동대문구 전농2동 성 바오로 병원의 치유 수도자 이야기

6월 3일 (금) 오후 10시-11시

- **성경교실:** 정인준 신부의 성경 교실 / 요한복음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6년 5월 22일 (삼위일체 대축일)

주일헌금	\$ 7,941.50
교무금	\$ 9,560.00
교무금(신용카드)	\$ 4,400.00
특별헌금	\$ 1,513.00
2차 헌금	\$ 0.00
합계	\$ 23,414.5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전례 및 청소 담당

5월 29일	비엔나 1
6월 5일	비엔나 2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이강영(테오도로),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 송영하(요한)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윤백범(프란치스코), 윤시훈(아우구스틴), 임현석(아비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펠릭스), 장동건(스테파노),
장동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집(안토니), 심용천(요한),
전성호(세례자 요한), 장동길(피터),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헬(미카엘라), 이솔(루시아), 에스더 정(세레나),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혼인공시

- ◆ **김남식 씨 사: 김 토마스**
- ◆ **김근태 씨 녀: 김나래 크리스티나**
- 일시: 2016년 6월 4일 (토) 오후 2시
- 장소: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 이 두 사람이 혼인해서는 안될 어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임사제나 교구집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18-5404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 엘리사벳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Youngs Health Care Inc.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주택용자, 채용자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엽)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스카이 학원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씬머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재노 오 부동산 Washington New Star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Susan Interior 커튼, 블라인드 김수산나 703-981-4296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영업 (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찰탈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F teck connection, LLC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마태오 흥 종합보험 자동차, 집, 사업체, 은퇴연금 장기간호 / 생명 / 건강보험 703-969-8956 703-969-8954	LED Lights 매장창문, 건물라인 쇼케이스 및 진열장 쿨러, 간판, 형광등 설치·판매 773-931-1238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Springfield TOYOTA New / Used Cars 조상준(유스티노) 703-269-1400 Cell. 703-909-0688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신디 리 부동산 텔리 전문 사업체 이루시아 703-338-0008
중미반점 (애난데일 예촌과 WELLS FARGO BANK사이) 임형석(가브리엘) 703-658-2030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ASSA 종합보험 최 클라라 생명, 건강, 비즈니스 자동차, 주택 703-649-2110	5분 도정 즉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www.JCProvision2016.com 703-366-3286	찬들리 HYUNDAI 김경태(바오로) 571-314-3467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Kitchen, Deck Sunroom 해성건축 김영수 (요셉) 571-477-5996	확신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대 부동산 이창호(어거스틴) 571-455-0768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임경옥 부동산 Gangnam Realty & Management Group, LLC 703-944-1337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 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정인준 (파트리치오)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